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타(vita)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09일(수요일) / 장 소 : CLC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이*윤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정*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회차”</p> <p>1. 자신이 그리는 행복의 이상향</p> <p><이*윤></p> <p>내가 그리는 행복은 쉽고 간결하게 정의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p> <p>가장 먼저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일이다. 나는 뜨개질도 좋아하고 산책도 좋아하고 풍경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때때로 따뜻한 차를 한 잔 옆에 두고 뜨개질을 하거나 걷기 좋은 날씨엔 카메라를 챙겨서 발길이 닿는 대로 걷는다. 이 소소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온전히 나를 느낄 수 있고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지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내 행복이다.</p> <p>다른 부분을 생각해보자면 나를 좋아해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꼭 거창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좋다. 가보지 않았던 곳을 여행하는 것도 물론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지만 마주 앉아 일상을 나누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거창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행이 더 커지므로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또한, 함께 읽은 책 ‘꾸뻬씨의 행복여행’에서 꾸뻬라는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여행하며 행복에 대해 배운 것을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해두는데 그 중 ‘배움 7.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문장과 ‘배움 14. 행복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가까운 문장으로 느껴졌다. 나를 좋아해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앞의 두 문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p> <p>이렇게 혼자서도 다른 누구와 함께 있어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다. 혼자서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함께하는 것에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자꾸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는 행</p>							

복이란 '함께 있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좋은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형>

행복을 생각하면 나는 가장먼저 어린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다. 어린 시절의 나는 행복이란 이렇게 생각하였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사는데 부족함 없이 가끔 여행을 떠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에 오순도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마치 책속에 나오는 '뽕썩' 처럼 지금의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번다면 미래의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의 나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나도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나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이 크니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이것이 흔한 사람들의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책 속 "배움_19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구를 읽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한 선택들이 후회됐다. 아무리 부모님 반대와 위험한 일 일지라도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걸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행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또는 그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선택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정*>

나는 행복의 이상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언제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는지를 떠올려 보았다. 그때마다 깨달게 된 것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였다는 점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부터, 여행을 가거나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갈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일 때 가장 행복했다.

어릴 적에는 타인이 먼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키, 외모, 재력 등에서 특출나지 않다고 생각했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렸다. 그 결과 자존감은 무너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며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내가 기준이 아닌 타인의 행복에 의존하면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며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외적인 요소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을 채워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비로소 함께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꾸뽀는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었는데, 나 또한 타인과의 비교는 진정한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결국 내면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본질임을 알게 되었다.

꾸뽀의 배움13 -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의 행복의 이상향과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여기서 쓸모란 단순히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이상향은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고, 진정한 나의 행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 기준에서 행복을 찾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을 높여 나 스스로가 행복해짐으로써, 함께하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연>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적혀있는 저자의 서문이 더 와닿았다. 이 책이 행복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않고, 그저 꾸뻘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 준 부분이다. 행복이란, 누군가 찾아낸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과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행복을 발견했는가? 우선 나는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이 가장 큰 것 같다고 생각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책 내용 중 꾸뻘이 납치당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 놓였을 때, 꾸뻘은 죽음의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게 되는 것이 더 두렵다는 생각을 한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소중하다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때문에 비로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만한 존재가 곁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꾸뻘이 책 마지막 부분에 정리한 다섯 가지 행복 중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에 해당된다고 본다.

직관적인 질문으로 '행복이란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나는 행복의 필수 조건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다. 완전한 행복에 대해 필요한 필수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사랑'이라고 답을 내렸다. 행복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즉,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등 관계 자체에서의 사랑이며, 사람이 아닌 특정 대상이나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사랑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매개체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는 몰입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에는 열정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오는 몰입으로 인한, 감정적인 교류를 맺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집중할 혼자만의 시간은 당연하게도 필요하다. 누군가는 혼자만 있는 것도 행복이라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난 동의할 수 없다. 안정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도 가치있게 느껴지고 행복이라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그리는 행복의 이상향으로는 '관계 속에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사랑하는 사람(또는 무언가)과 함께 하는 순간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2. 인상 깊었던 내용

<이*윤>

내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현재의 삶과 자신이 원하는 삶의 차이’에서 위대한 교수가 말하는 부분이다.

위대한 교수는 “행복이라, 그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하다가는 머리가 깨질 겁니다. 행복은 기쁨인가요?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기쁨,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고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중략) 그렇다면 행복이란 작은 기쁨들과 작은 쾌락들의 합계가 아닐까요? 내 동료 학자들은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용어에 동의합니다. 물론 당신도 그 개념에 대해선 벌써 알겁니다!”라고 말한다.

이 교수가 꾸삐에게 던진 이 질문들이 독자에게 전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주관적인 행복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복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위대한 교수가 던진 이 질문이 우리가 고심한 시간을 대변해주는 듯해서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최*형>

내가 책을 읽으며 처음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배움_8의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라는 문구였다. 책속의 꾸삐는 중국에서의 여행 중에 잉리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그와 잉리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고도 그녀를 잊지 못하였다. 그 후 꾸삐는 여자친구에게도 잉리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꾸삐는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지만 계속 만나고 있는걸까?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마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걸 포기하여도 될 것 같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보다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서 사랑을 포기했었다. 이 선택이 후회가 남긴 했지만 무엇보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선택한 것 이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불행하고 슬픈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는 행복에 가까워지기 위한 선택일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꾸삐도 잉리를 놓아주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정*>

첫 번째로, 배움 1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한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억지로 행복함을 찾는 느낌이다. 그래서 꾸삐가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인상 깊었다.

두 번째. 배움 13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꾸삐가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의 능력이 타인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를 통해 나는 나의 행복뿐 아니라 타인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세 번째. 배움 19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상대방 또한 부담감을 느끼고, 나 역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여정이자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구절은 여러 경험을 통해

행복이 단순히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과 배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문화적 교류, 그리고 도전들 속에서 얻은 성찰이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것이 인상 깊었다.

<김*연>

꾸뻏가 행복 여행에서의 배움을 수첩에 적는 것이 특이해서 인상 깊은데, 그 배움의 부분 중에서도 여행 중 만난 노승이 얘기한 '행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가장 와 닿는다. 한때 나의 소원이 행복한 것이었고, 별똥별 보면 막연하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적이 있다. 과거 사랑하는 가족과 뜻자리 하나 펼치고 별똥별을 봤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고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전히 그때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소원을 행복으로 빌었던 것 같다. 그러나 노승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은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을 찾아 나서기보다 나는 다른 이상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수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여행을 마친 꾸뻏는 행복에 대해 정리한 배움을 적은 수첩을 들고 다시 노승에게 찾아간다. 나는 이 장면의 노승이 얘기한 것을 보고, 진정한 행복과 지혜, 즉 진리는 현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한순간 찾을 만큼 가까울 수도 있고 깊이 감추어져 아직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뇌리에 깊게 남았다. 여기서 나는 현재에서도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행복이 크기가 다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연이어 했다. 하지만, 가깝다 해서 작은 것이 아니고 어렵게 찾았다 해서 큰 것이 아님을 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기분으로 나는 이제 어디서나 나의 행복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꾸뻏는 여행 중 한 가난한 흑인 나라로 가서 장 미셀이라는 의사 친구와 함께 생활한다. 여기서 이 장 미셀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나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에게 나의 능력과 같은 쓸모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고, 결국 사랑받는 것은 나 자체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찾지 않을 때 불행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행복보다 불행을 찾기 더 쉽다는 것을 느꼈다.

인상 깊었던 장면 외에 책을 읽으며 느낀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책의 초반에서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꾸뻏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의 척도를 내가 계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꾸뻏가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행동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더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풍족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풍족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본 소득수준에 따른 행복지수 그래프가 연봉 6만~9만 달러까지는 계속 증가했던 것이 기억나는 등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부는 갖춰야함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가서도 익숙한 인물들과 함께 다니는 꾸뻏, 이미 교제하고 있는 여성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여성에게 마음을 뺏긴 꾸뻏을 보며, 토론의 새로운 주제로 익숙함과 새로움 중 만약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어떤 쪽을 선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익숙함과 새로움이 상황이나 사랑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선택을 할지 토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3. 익숙함 vs. 새로움,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새로움 속에서도 익숙한 인물과 함께 다니는 꾸삐
만약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이*윤>

안정감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 연령대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꾸삐라는 책 속의 인물은 자신의 삶에 있어 안정적인 직업을 경험해보기도 했고 또 도전도 해보았을 시기이지만 지금의 우리는 아직 익숙한 무언가를 찾기보다 새로운 것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한다. 젊음이 가장 큰 장점인 시기에 안정감만을 주장하기엔 이후에 내가 도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순간에 너무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안정감 역시 중요하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다가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쉬어갈 수 있는 나만의 정서적 피난처를 만들어두는 일은 다시 도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도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적절히 잘 조절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형>

익숙함과 새로움을 생각해보면 사랑이 빠질 수 없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며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덕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연애 중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결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한다. 마치 책속의 꾸삐처럼 말이다. 이들을 본다면 처음은 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의 뜻이 같아서 만나게 되지만 몇몇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새로움, 또는 지금과 다른 것을 찾아서 마음을 돌린다. 이것은 그들이 익숙함에서 오는 정보다 새로움에서 오는 설렘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익숙함을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나 익숙함 전에는 새로움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새로움도 시간이 지난다면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지금의 나는 익숙함보단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시도하고 싶다.

<정*정>

새로운 경험은 흥미롭고 자극적이지만, 결국 익숙한 관계와 환경에서 더 큰 편안함을 찾게 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고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니 점점 지쳤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새로움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익숙한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새로움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연>

인생은 매번 선택의 순간들로 넘쳐난다. 선택의 갈림길 이후 오는 후회와 행복은 직관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동반될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다.

나는 당장 지금의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새로움을 선택하겠다. 나는 모험심이 강한 편으로, 모험에서 오는 만족감이 훨씬 크다고 느꼈기에 새로움을 추구하게

	<p>되었다. 다만,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임에 따라 익숙함에 안주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p> <p>내가 속한 환경을 생각해보면, 나와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도 많고, 오래 사용한 애착이 깊은 물건도 많으며, 이 모든 익숙한 것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쌓여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처음 시도하는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아하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과 환경에 놓이면 매우 즐거워하며, 경험을 쌓는 것을 재밌다고 느낀다.</p> <p>계속 한계점에 부딪혀봐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기에, 익숙함도 좋지만 새로움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새로움을 선택하였다.</p> <p><활동 사진></p>
--	---

2024년 10월 09일

참가자대표 : 이*윤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타(vita)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16일(수요일) / 장 소 : CLC 스튜디오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이*윤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정*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2회차”</p> <p>1.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 34p (ex. 이렇게까지 해봤다)</p> <p><이*윤></p> <p>과거에는 친구가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믿어서 친구에게 사랑받기 위해 행동했었다.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배려하는 행동은 결국 나를 힘들게 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매번 양보하고 배려해주다 보니 나를 그냥 양보만 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만만하게 대했던 친구와의 관계도 큰 상처였고 이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이겨내기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가족들에게는 끝내 힘들다고 표현할 수 없었다. 스스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자주 아팠던 오빠 때문에 늘 걱정이시던 어머니를 보며 나는 걱정시키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만 늘었다.</p> <p>이 밖에도 다른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는 참 많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리고 때때로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사람들도 서로 애정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한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 연인에게서 받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다. 연인 역시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p> <p>나는 연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내 일정을 미리미리 정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더 강해졌다. 정확히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연인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계속 애정을 주고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사랑받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아닐까 싶다. 나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누굴 만나는지 이야기해줌으로써 나에게 대한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를 한 번 더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의 일정을 더욱 미리 확인하고 알려주려고 애썼다. 지금은 이 행동에 대한 의무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나의 연인도 이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이해해주어서 강박적인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행동도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왔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p> <p><최*형></p> <p>모든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라 한다면 남녀의 사랑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자친구와 6개월을 만나고 군대로 입대한 나는 사랑하는 여자 친구에게 미안하고 아주 슬펐었다. 그래서 나는 여자 친구가 내 군대를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에 나의 모든 휴가와 외박을 오로지 여자 친구만을 위하여 나왔다. 친구를 보기위해 나온 적도 전혀 없었고, 가족들의 생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에서 아빠 차를 끌고 여자 친구를</p>							

보러갔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별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흔히들 가는 동기와의 전우조 외박 하나 없다 그런다면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시작은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시작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 태어나 보는 엄마의 얼굴부터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온 것 같다. 내가 원하지 않은 대학에 진학 하였고 항상 무뚝뚝한 형 밑에 딸 노릇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둘째로 태어난 나 그리고, 키워주신 할머니를 항상 누구보다 생각을 많이 했어야했던 나는 지금껏 나의 거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가족들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한 선택들이 아니었을까?

<정*>

나는 사랑받고 싶을 때 나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웃긴 아이가 되려고 애썼다.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있는 농담을 하거나, 친구들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착한 아이로 보이고 싶었다. 성적을 잘 받은 날은 특히 과장되게 이야기했다. 의도적으로 기대감을 부풀리고 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며 사랑을 느꼈다. 나의 성취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 큰 만족을 느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은 물론 좋아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기호에 맞추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좋아하는 취미나 주제나 관심사를 미리 알아두고, 이를 자연스럽게 대화에 녹여내는 식으로 상대방의 관심을 끌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내게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하게 되었다.

외모로도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다. 사람을 처음 볼 때 평가할 수 있는 건 외모뿐이라고 생각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신경 써서 입고, 좋은 향을 풍기기 위해 향수를 사용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를 꾸몄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처럼 특정 인물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날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옷을 입고 나왔으며, 나의 외적인 변화가 상대방의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부모님이 주는 사랑을 항상 원했다. 어린 시절에는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만큼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만 하자고 스스로 생각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친척이나 부모님의 지인을 만날 때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착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칭찬을 들곤 했고, 나는 그 칭찬을 통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책에서도 나처럼 인정받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엄격한 집안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며 소속감과 인정을 얻으려는 모습이 등장한다. 나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친구들이 일탈적 행동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착한 아이로 남아 부모님의 자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책 속의 아이와는 달리 나는 부모님의 착한 아이를 선택했다. 결국 친구들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들 중 일부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원하는 착한 아이의 모습은 교우 관계가 원만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나는 그 문제를 드러낼 수 없었다. 따라서 나는 사랑 받고 싶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적인 갈등과 희생을 자처했다.

<김*연>

가족 간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양측 집안의 장녀의 역할로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큰 불만은 없었다. 오히려, 학창 시절에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에 부담을 느끼기보다 말 잘 듣는 딸과 손자였다. 그러나, 학업적인 부분에서 학력이 우수한 부모님에게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고, 최종적인 결과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큰 실망하시게 되었다. 이후 그 기대가 부담되기 시작하였고,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생기면서 더 착한 딸이 되고자 하였다. 때문에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항상 어머니가 데리러 오셨고, 나는 새벽에 친구들이랑 공부하거나 같이 다닌 경험이 없다. 어딜 놀러가거나 나가는 데 있어 제약이 있었기에 학창시절 친구들과 추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학교가 끝나면 늘 어머니의 뜻에 따라 행동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가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가족이라는 소속에서 배척되고 싶지 않다는 욕구로 인한 것이었던 것이다. 과거 나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에 불만이 생길 즈음 대학에 입학하면서 코로나가 겹쳤고 일종의 반항을 하게 되었다. 친구들을 통해 소속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그제서야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가 드러난 것이 아닐까싶다. 앞서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 본 적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받고 싶어서 자유를 포기했던 경험은 후에 연애할 때도 나타났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 사람과는 서로의 자유를 구속하며 세상에 둘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었다. 그로 인해 과 생활이나 동아리와 같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나는 학교생활을 많이 즐기고 싶었으나 실질적인 활동의 경험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랑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막는 요구들을 받아들였고, 이후 내가 받은 통제를 상대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서로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서로 큰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억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더 심하였기에 알 수 없는 애증을 갖게 되면서 결국 부정적인 끝을 맺게 되었던 것 같다. 아직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후회와 찝찝함이 남아있다.

1-1. 사랑받고 싶어서 한 행동에 대한 후회나 스트레스를 받은 적 있다면, 소속에서 오는 만족감과 자기표현을 해내지 못했다는 스트레스 중 무엇이 더 크게 드러나는가. (ex. 소속에서 떨어져 나올 것 같은 공포)

<이*윤>

소속에서 오는 만족감보다는 자기표현을 하지 못했던 감정이 더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중학교 시절 얼마 되지 않은 인생 경험에서 친구관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친구와의 약속이 중요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애정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했다.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한 마디 해줄 수 있다면 소속감이 너에게 주는 행복보다 네가 너를 사랑해주고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를 죽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 집단의 소속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 때 이런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이제는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듯, 이제는 내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고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

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안다.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를 위해 나를 버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한다. 친구들에게 애정을 느끼기 위해 나를 미뤄두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최*형>

나도 어렸을 적에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로 보이기 위해 행동한 것 같다. 친구들이 봐도 재미있고 부모님이 봐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온 것 같은데, 이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를 정말 후회한다. 사람을 너무 좋아했고 남에게 많은 기대와 믿음을 가졌던 나머지 큰 실망도 따라오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간다.

현재의 나는 나의 의견을 항상 얘기한다. 친구 관계에서도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소속된 곳에서 떨어진다 해도 무조건 얘기해야 하며, 때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모든 곳에 나의 불만과 필요를 다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소속감을 위해,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나의 감정마저 상처받으며 어울리고 싶지는 않다. 이제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기에 나의 표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정*>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한 행동에 대한 후회나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소속에서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굽힌다면 그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억눌리는 느낌이 커진다. 결국 내가 진정 원하는 모습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진 나로 살아가는 데서 오는 불안함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나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고 타인이 원하는 나를 좋아해 주는 무리는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 무리에서 벗어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껴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보다는, 나의 본 모습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김*연>

집단에서 오는 만족감 보다 자기표현을 해내지 못했다는 스트레스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 말을 못하고 참고 살다 보면 결국 축적된 스트레스가 터지는 시기가 오기 마련이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고 배려를 받는 것이다. 속으로만 삭히면 아무도 몰라주며, 자기 PR을 해야 소속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후회할거라면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겠다. 예를 들어, 사랑받고 싶어서 부당한 일을 맡고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안하고 말겠다는 것이다. 결국 소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자기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족감은 한순간이지만 스트레스는 축적된다. 결국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기효능감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2.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의 충돌에 대해 사고해보기.

(ex. 가족의 사랑 vs 회사의 인정)

<이*윤>

나는 친구 사이에서의 애정과 연인 사이의 애정의 충돌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흔히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영상이나 드라마에서도 친구 사이의 우정과 연인의 사랑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쯤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곳에서 다뤄지지만 그만큼 늘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인 것 같다. 친구와의 우정과 친구와 나눌 수 있는 애정의 특별함이 존재하듯 연인 사이의 애정도 그만큼의 특별함이 존재한다. 나는 지금은 연인도 친구도 모두 소중한 입장에서 꼭 한 가지를 고르자면, 지금은 연인이 주는 애정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친구들과 서로를 이해해주고 애정 어린 말을 건네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가족에게서 받는 사랑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때때로 가족만큼이나 큰 사랑의 마음을 건네는 것이 주는 특별한 감정은 살면서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아닌 존재에게 나의 희생과 마음을 주는 이 경험은 우리 삶에 있어 또 다른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알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형>

나는 사랑 중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가족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나의 시간을 조금은 포기해야 되는 것 같다. 책속에도 40대 남서 E씨는 자신을 몰아넣으면서 회사에 몸을 갈아 넣었고 그러기에 가족들과는 멀어져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나의 과거가 화려하고 높은 명예와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부모님의 맞벌이와 사업으로 어려서 학창시절 부모님과 한 번의 여행도 간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게 나의 꿈이기도 했다. 물론, 사회적 지휘와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는 내가 그만두고나, 사업도 그만두고 난다면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인정해준다 한들 가족의 사랑이 없다면 그 무엇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어렸을 적의 추억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 같다. 회사에 인정받고 싶고 명예를 쌓고 노력하는 만큼 그 뒤에는 가족의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의 사랑도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가지 않을 것이다.

<정*>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가족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의 사랑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받게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아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를 통해 배우는 가정교육과 무조건적인 애정은,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리 잡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연인의 사랑은 성인이 된 후 경험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다. 연애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깊은 교류를 나누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특히 연애는 성적 매력과 함께 감정적인 깊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한 가족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이다. 육체적 교류가 동반될 때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적 연결이 한층 깊어져,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두 사랑은 서로 충돌하기 마련이다. 특히, 가족의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면 연애 관계에 집중하게 되어 가족의 사랑에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부모가 연애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면 가족의 기대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은 더 커질 것이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연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족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 사이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연인에게 노력하고, 다시 그 경험을 가족에게 돌려주며 유대를 이어간다면 두 관계 모두 원활하게 될 것이다.

<김*연>

나는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소속감의 욕구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다. 만약 서로 다른 무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학창시절의 청소년기 아이들에게겐 가족만큼이나 또래집단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친한 친구들이 싸우고 나에게 누굴 선택할건지 물어본다면, 엄청나게 고민이 될 것 같지 않은가? 나의 경험에 빚대어 보자면, 과거의 나는 둘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와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그저 방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두 갈등 주체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았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태였고, 크게 엮이고 싶지 않았다. 때문에 중립을 취하겠다는 태도로 한 사람에게 비난이 몰릴 때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중립을 취한 것이 아니라 둘 중 한 쪽의 편을 들었을 때 나타난 결과로 인해 나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결국 갈등 이후 다른 친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그 일은 아직까지도 후화로 남아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충돌할 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활동 사진>

2024년 10월 16일

참가자대표 : 이*윤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타(vita)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30일(수요일) / 장 소 : CLC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이*윤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정*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3회차”</p> <p>1. 삶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받았는지(경험)와 그 이후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있다면?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 포함)</p> <p><이*윤></p> <p>나는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꽤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는 것이 취미였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따라 쓰고 그 아래에 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것부터, 그냥 생각하는 대로 끄적이거나, 때때로 짧은 시나 산문을 쓰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 말 그대로 글쓰기가 취미였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때 내가 쓴 글을 보신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하는 글쓰기 대회에 나가볼 것을 권유해주셨고 나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써서 제출했다. 그리고 어쩌면 운도 따랐을지 모르는 그 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나는 글쓰기가 더욱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다.</p> <p>그때부터는 글쓰기 대회에 종종 참여했고 어렵지 않게 꽤 많은 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단순히 나의 취미 생활이었던 글쓰기가 타인의 인정과 대회 수상 등의 공적인 인정 과정을 거쳐 나에게 작가라는 꿈을 주었다.</p> <p>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상담사가 꿈의 전부였던 나에게 또 다른 분야의 꿈이 생겼다.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상담사라는 꿈은 희미해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곳에서 일할 수는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여전히 작가라는 꿈은 언젠가는 꼭 도달하고 싶은 분야가 되었다.</p> <p>이렇게 취미가 꿈이 되는 순간을 경험해보니 삶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한 사람의 삶과 그 삶의 목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p> <p><최*형></p> <p>나는 어려서부터 사소한 체육부장부터 동아리 회장, 반장, 학생회 임원, 전교 부회장까지 누군가가 보기에는 인정받은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나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 행동한 것 같다. 나에게 2살 터울인 형이 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형보다 나를 더 의지한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집안일, 잡일, 그리고 부모님의 일까지 도우며 착한 아들이 되고, 누가 봐도 착한 아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며 지내왔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나를 더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나라면 지금의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은 항상 부담</p>							

이 따라오기 마련인 것 같다.

사람은 자신이 편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은 “내가 인정받으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나는 이 원하고 바랐던 부모님의 인정이 부담으로 느껴졌다.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한 아들이자 가족에게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만, 나 스스로는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가족들과 그 외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한 행동들이지만, 나는 진정한 나의 마음에서 나온 선택들이 아닌, 이 시선 속에서 진정한 나를 숨기기 위해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아직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족들에게 거짓의 내가 아닌 진짜 나로 인정받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려 한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욕구가 충족될 수도 있지만, 나 또한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잘 해내는 아이로 주변에서 인정 받아왔고, 자연스럽게 인정 욕구가 강했다. 학창 시절을 거치며 이 욕구는 점점 커졌고, 성인이 되어 더욱 뚜렷해졌다.

나는 군대를 동반 입대했다. 친구에 비해 나는 체력도 약했고 군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적응하기 힘들었다. 특히 철책 근무가 정말 힘들었고, 거기다 주특기도 자주 바뀌었다. 기껏 적응한 것을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애한테 무리였나?"라는 평가를 들을까 겁이 났다. 하지만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 없었기에 버티며 적응했다. 결국 체력과 상황 판단력을 인정받아 동기 중 가장 먼저 사수가 됐고, 책임감도 강해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에 출선수범했다. 하지만 점차 나만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나만큼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됐다. 그러고 나니, 문득 내가 능력에 대한 인정 욕구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상황 자체에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후 휴가를 통해 생각을 정리했고, 나 자신과 타협하며 유연하게 상황을 넘기기로 결심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인정 욕구가 어떻게 나를 발전 혹은 부담을 주는지 깨닫게 됐다. 인정 욕구가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고, 그 욕구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며 변할 수 있었고, 이제는 지나친 인정보다는 내 속도대로 나아가면서 나에 대해 알게 됐다. 이 교훈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김*연>

성격적인 부분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너는 활발하다 말을 잘 들어준다 등의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신기하게도 그런 평가에 부합하고 싶어서 더 과장되게 표현하게 되는 것 같다. 그들이 생각한 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니 그만큼 되고 싶어서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나서게 되거나 기분이 상했는데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너 원래 안 그랬잖아’라는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인정에 부합하고자 행동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것 같다. 그렇

게 들어왔던 말들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다른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성격적인 면모에서 다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재 장성한 나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 번 더 변화하였다. 다른 이들이 보는 나를 잘 표하기도 하고, 볼 수 없는 나를 잘 달랠 수도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인정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깨달았기에 오히려 그를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었다. 어차피 사람들은 보고 싶은대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맞출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솔직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게 되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정형화되지 않은 창의적인 자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데 나는 아직 멀었다.

2. 활동. 내가 보는 나 & 타인이 보는 나

<이*윤>

타인이 보는 나로 친구들이 적어준 내용 중에는 책임감 있다는 표현이 많아서 좀 놀랐다. 스스로는 그렇게까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쩌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타인이 상처받지 않게 얘기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배려심이 있어 보인다.'는 표현이 내가 생각하는 나와 겹쳐서 눈에 들어왔다.

그 외에도 내가 보지 못한 나의 긍정적인 모습들과 전반적인 모습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 의미 있었다.

<최*형>

친구들과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아서 서로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있는 나를 꺼내는 것이 나는 오히려 진실된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았다. 나와는 너무 다른 점들도 많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같았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의미 있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 뿌듯했다. 특히 이야기를 재밌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정이 많고 잘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보는 나와 비슷해서 나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는 나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부끄럽고 조금은 드러내기 싫을 수도 있지만,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보는 나와 비교해 보니, 어쩌면 지금의 내가 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정*>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어 뜻깊었다. 특히 종이에 적고 서로가 이를 읽어본다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내가 보는 나를 적으려니 부정적인 생각들만 떠올라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남이 보는 나에 대해 받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난다"와 "착하다"는 말은 내가 가장 원하는 칭찬이자 내 가치관이기에 듣기 좋았다. 또한, 눈치를 많이 본다는 의견은 나 역시 알고 있던 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직접 듣고 나니 내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 꽤 의미가 있던 활동이었다.

	<p><김*연></p> <p>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좋아하는 나는 이번 활동이 굉장히 즐거웠다. 나를 분석 당하는 기분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한 활동이었다. 남이 보는 나에서 결단력 있다는 표현이 나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고 멋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주장이 뚜렷하다, 의견을 잘 낸다는 것과 트렌드에 민감하다, 꾸미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내가 보는 나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신기했다. 내기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생각보다 유사함 점이 많다는 것이 신기하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대체로 좋은 말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힐링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p> <p><활동 사진></p>
--	---

2024년 10월 30일

참가자대표 : 이*윤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타(vita)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06일(수요일) / 장 소 : CLC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이*윤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정*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4회차”</p> <p>1. 책 속의 인물 탐구. 도리언의 선택</p> <p><정*> 도리언의 경험과 현대 사회에서 욕망을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 비교해 봤다. 도리언의 욕망은 미와 젊음의 영원이다. 하지만 이건 현실에선 불가능 한 일이다. 때문에 미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현대에서 사람들이 미와 젊음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어떻게 충족할까? 내가 떠올린 것은 성형이다. 성형의 긍정적인 부분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적 관계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나친 성형은 외모에 대해 집착을 유발할 수 있다. 금전적 부담이나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도리언처럼 타락한 내면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렇게 채워진 자존감은 쉽게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 초상화에 대해서는 SNS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도리언이 초상화를 통해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과 내면의 타락을 거래했듯, SNS 상의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초상화의 역할을 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가 되지만,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리언이 자신의 초상화를 감추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SNS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좋아요와 팔로워 수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타인과의 교류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감정적으로 고립되거나, 내면의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욕망을 해소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해소를 하는 방식이 건강해야 올바른 욕망의 해소라고 생각한다.</p> <p><최*형>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읽으면서 도리언의 선택과 그의 욕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 도리언은 자신의 외모와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도덕적 가치와 인간관계를 희생하게 되지. 이 과정에서 그는 쾌락주의에 빠져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점점 더 고립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도리언처럼 극단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정말 파멸적일 수 있어. 예를 들어, 도리언이 바질의 초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행동은 그가 불안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야. 결국 그 두려움이 그를 바질을 죽이게 만들었고, 이는 그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p>							

한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도리언의 욕망을 해소하려는 행위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따라 욕망에 따른 선택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고 느껴지는 것 같다. 우리는 욕망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지만, 도리언처럼 욕망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경우, 자아와 타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나의 욕망으로 인한 선택을 할 때에는 과정뿐이 아닌 결과를 항상 생각해야 할뿐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연>

욕망과 함께 동반되는 감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반대되는 욕망을 이룰 수 없다는 두려움이 동의선상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두려움은 다르게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언의 경우 아름다운 자신의 젊음이 반영된 초상화를 욕망으로 봤을 때, 자신의 욕망이 해소된 것을 타인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도리언은 타인을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숨기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초상화는 욕망의 결과를 숨기고자 한다. 자신의 초상화가 망가질수록 더 큰 욕망이 발현되는 것을 보고 욕망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더 큰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욕망을 이루지 못한 두려움이 아니라 욕망으로 인해 얻은 결과물을 지키지 못할까봐 생기는 두려움이 도리언에게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도리언의 기저에 있어서 도리언이 결과적으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욕망 해소 행위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이 올바르게 못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며, 도리언이라는 인물 자체의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리언은 헨리를 마주하며 욕망이 생겼는데,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남의 말에 의해 발생한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올바르게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욕망을 타인의 시선에서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과연 본인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인간은 양심과 도덕적인 선 안에서 행동해야 하며 욕망을 해소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이*윤>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책 속의 인물 도리언이 해온 선택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도 생각한다.

인간이 욕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 속의 도리언이라는 인물은 자신에게 생긴 욕망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 너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욕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그 선을 넘어버린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신을 저버리면서까지 욕망을 추구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주인공인 도리언은 헨리라는 인물에게 너무 큰 영향을 받았고 자신의 주관은 뚜렷하게 지키지 못했다. 자신의 욕망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고 스스로 그 욕망에 대한 선택을 했다기보다 헨리를 만나서 헨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휩쓸린 선택을 한다. 자신에게 외적인 아름다움과 관련한 욕망이 있다는 사실 역시 헨리와 대화를 나누다 깨닫게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 깨닫게 된 무엇인가 있다면

도리언은 그 의견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해서는 안 됐다. 깨닫게 된 것에 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의 자신을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헨리의 의견만 듣고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전부 잃은 후에야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점이 한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2. 내가 가진 욕망은 무엇이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했던 선택 중 후회했던 적은 없는가?

<정*>

내가 가진 욕망 중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친구들과의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즐겁고 소중한 것이었기에, 통금 시간이 다가와도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가려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즐거움이 너무 커서 이따금 통금을 어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나에게 후회로 남은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셨다. 당시 어린 나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어른들도 나를 걱정시킬까 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평소처럼 친구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병원에 모였고, 엄마의 수술을 기다리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상황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처음 봤을 때, 그 순간이 어린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엄마가 위독한 상태에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지 못하고 친구들과 노느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어 엄마는 건강을 되찾으셨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느꼈던 즐거움은 분명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내가 정말 소중한 여겨야 할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 점은 지금까지도 후회로 마음에 남아 있다. 이 경험은 내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욕망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형>

대학 선택에 대한 후회는 나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어머니의 안정감과 부모님의 불안 감소를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항해사가 되어 세계 곳곳을 탐험하고 싶은 꿈이 있지만, 대학 생활로 인해 그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오는 것 같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초등학교 시절에도 있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자전거 연습을 시작했지만,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팔을 골절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 선택과 자전거 연습 모두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후회는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었다. 대학 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을 가고 싶다는 갈망을 더욱 강하게 했던 것 같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따라가고 싶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내 꿈과 열정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다.

<김*연>

나는 과거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하고자 노력하던 때가 있었다. 한 예술단의 단원이었던 만큼 한국무용에 진심으로 임했었는데 계속 활동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 후회된다. 어린 시절에 신체적 재능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기에 실력이 출중한 아이들은 많았고, 예술단에 남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을 요했다. 하지만 나는 와중에 어린 마음에 놀고 싶은 욕망이 존재했고 그로 인해 연습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는 키가 덜 자랐기 때문에 단원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당시에는 잠깐 아쉽고 다른 친구들과처럼 놀 수 있다는 사실에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하니 이제야 아쉬움이 남는다.

<이*윤>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와 오해가 생겨 관계가 끊어졌던 경험이 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나도 그 친구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지 않다보니 후회하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지만 대학교에 오고 1, 2학년 때까지는 그 때 그 친구와 오해를 풀기위해 조금 더 마주앉아 이야기해볼걸 하는 후회가 들었던다.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 중 한 친구에게 유독 마음이 쓰이고 안쓰러워 더 가까이 하고 신경써주곤 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고 다른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 관심이 다른 친구에게 나눠졌다. 나는 여전히 그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지만, 내 추측은 아마 다른 친구에게 나눠진 관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소원해진 친구가 주변 친구들에게도 나에게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 한동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중학교의 친구들이 많이 겹쳐서 소원해진 그 친구의 이야기만 나와도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였다. 당시에는 그 친구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친구들과 싸우거나 심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그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와 마주하고 직접 물어봤었다면, 그래서 그 오해를 풀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후회가 들었다.

<활동 사진>

2024년 11월 06일

참가자대표 : 이*윤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타(vita)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13일(수요일) / 장 소 : CLC 스튜디오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이*윤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정*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5회차”</p> <p>1.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읽고, 욕구와 욕망의 해소가 과연 행복감을 불러오는가?</p> <p><정*></p> <p>나는 우선 욕구와 욕망을 구분해 봤다. 욕구는 흔히 인간의 3대 욕구가 대표적이다. 수면욕, 성욕, 식욕. 그리고 인정, 사랑 욕구 등이 있다. 이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욕망은 이러한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느끼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들이다. 예를 들어, 도리언처럼 아름다움, 젊음이나 부, 명예, 권력 등이 있다.</p> <p>먼저 욕구의 해소가 행복감을 불러오는가? 당연히 불러온다고 생각한다. 흔히 말하는 인간의 3대 욕구 중 한두 개만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욕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 <p>그렇다면, 욕망의 해소가 행복감을 불러오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다. 욕망을 해소하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사람은 욕망이 충족되면 더 높은 욕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흔히 갖는 욕망이 무엇일까? 나는 사치의 욕망을 떠올렸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휴대폰을 갖고 싶다는 마음에 아이폰을 사면 처음에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곧 에어팟이나 아이패드, 맥북 등 더 많은 제품을 갖고 싶어 한다. 욕망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며, 오히려 충족되지 않은 다른 욕망을 만들어낸다. 처음에는 욕구였던 것이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 행복함에서 집착으로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욕망의 해소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소소한 행복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순간들은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 사소한 순간에서 사소한 욕망의 해소는 행복감을 준다.</p> <p>욕망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도리언의 경우, 미와 젊음이란 욕망을 갖고 욕망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 마무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아, 헨리의 철학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닌, 쾌락을 찾는 것처럼 행복함이 결말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욕망의 해소를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지키며 욕망을 긍정적으로 해소한다면 행복감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p>							

<최*형>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읽고 욕구와 욕망의 해소가 과연 진정한 행복감을 불러오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욕구와 욕망을 해소함으로써 행복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도리언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그는 자신의 외모와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도리언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결핍과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욕망이 그를 더욱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고, 해방감보다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욕심이 커졌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처럼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반면, 어떤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목표 달성에서 오는 행복감은 더욱 깊고 지속적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성취감은 결핍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 더욱 커지며, 이 과정에서 얻는 자아 존중감은 삶의 질을 높이고,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의 노력을 느낄 수 없고, 목표를 설정할 이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또한, 젊음이나 미의 기준처럼 추상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준이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결핍은 어쩌면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욕구와 욕망의 해소가 항상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결핍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중요한 성장의 요소이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취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연>

결과적으로 욕구와 욕망의 해소는 더 큰 욕망을 키운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라는 족속이 한에 만족하고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큰 목표를 갖기 때문에 만족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족은 행복감과 비슷한 맥락으로 차라리 사소한 일상에서 맞이하는 작은 것들에 행복감을 얻을지언정 정작 원하는 것에 대한 행복감은 얻지 못할 것이다. 본디 사람이란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 때 입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은 커서도 옷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고 더 좋은 옷을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써 얻는 '만족감'은 있으나 '행복감'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욕망 해소의 끝에서 느끼는 감정은 행복감 보다는 해방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한 가지를 끊임없이 원하고 탐닉하고 그 뒤에 비로소 원하지 않게 될 때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지 않는가. 날 괴롭히던 결핍이 욕망으로써 채워질 때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과유불급(過有不給)이라는 말처럼 욕망을 너무 키워서는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원형 얘기에서 욕망을 해소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욕망 해소 이후 느끼는 감정이 해방감보다 의욕을 잃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은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결핍은 무조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핍을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 인해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결핍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이 채워진다는 행복을 느끼는 것

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 해냈다는 감정보다는 '아.. 끝났다.'는 해방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윤>

꿈을 꿀 때도, 목표를 설정할 때도, 작은 꿈 작은 목표가 있듯,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작은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행복감을 불러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는 것은 필요한 행위이며 특히, 행복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욕구와 욕망의 해소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삶의 배경조차 해소되지 않는데 행복을 논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책 속의 인물, 도리언 그레이와 같이 자신의 끝없는 욕망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까지 이리진다면 이는 행복감을 불러오는 것과는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특히, 인간은 특별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사회적 분위기와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벌을 받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를 저버리는 순간에는 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도리언 그레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이뤄질 수 없는 소원을 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욕망에 사로잡혀 이미 망가져버린 자신의 초상화를 감추기 급급했고 기어이 살인까지 저지른다. 타인을 살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의 욕망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결말을 맞이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행복감을 불러오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을 불러오거나 더 큰 욕망을 일으켜 한 인간의 삶을 집어삼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말해,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모두 가진 양면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인간은 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뭐든 적절한 만큼이 좋다. 욕구와 욕망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으나 목표나 꿈과 같이 생각하고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역량을 갖춘다면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고 운택하게 만드는 것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활동 사진>

2024년 11월 13일

참가자대표 : 이*윤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타(vita)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요일) / 장 소 : CLC 스튜디오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이*윤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정*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6회차”</p> <p>1.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p> <p><정*></p> <p>나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항상 말한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점도 동의한다. 따라서 영상 자료를 보며 두 가지 요소를 더 생각했다.</p> <p>행복해지려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자아 성찰을 하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정확히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진다. 자아 성찰이 잘 됐다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며 행동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p> <p>베푸는 마음 또한 행복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도움이나 사랑을 주고받는다.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에게도 정말 큰 기쁨을 준다. 때문에 이런 기쁨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의 최대치가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고립되고, 진정한 행복을 스스로 버릴 것이다.</p> <p>결론적으로, 행복해지려면 경제적 안정, 자아 성찰, 그리고 베푸는 마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추구할 것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p> <p><최*형></p> <p>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사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단순히 연인 간의 감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라는 존재 아래에서 성장하며, 그 어떤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우리 삶의 기초를 형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 <p>사랑은 항상 대상이 필요하다. 물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다. 혼자만 살아가는다면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다.</p> <p>사랑이 나의 행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나는 나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p>							

행복을 빼앗는다면,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것이다. 사랑은 나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감정이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서로의 사랑과 행복을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사랑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와 주변 사람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연>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명예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지위가 정의롭게 살고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이행할 때 명예가 명예답다고 생각한다. 명예를 추구할 때 이를 뒷받침할 사람을 만난다면 다음에나 사랑과 같은 다른 가치를 생각해 볼 것 같다. 나를 나 자체로 이해해 줄 사람이 아니라면 사랑은 좀 미룰 것 같다. 범법으로 취득한 명예 보다는 진실된 형태로 얻은 명예가 중요하다. 봉사도 많이 다니시는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 같다. 헌신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배웠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명예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사람은 성장할 줄 알아야 한다. 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멋진 것이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윤>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일단 물리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사회에서 돈 없이 행복을 꿈꾸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의식주의 수준을 넘기 위해서도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내가 먹는 음식도 온전히 그 재료부터 내가 만들기는 어려움으로 재료를 구입할 돈이 있어야 하고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것 역시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더 상위 개념의 행복을 논하기도 전에 우리는 돈 없이는 생활할 수 없으므로 행복을 위해서 물리적인 가치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리적이지만 않은 영역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젠가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은 추억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에 내가 행복했던 기억이 주는 응원은 매우 크다. 이 맥락에서 내가 감사함을 느꼈던 경험들 역시 내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기회가 되고, 나 스스로에게도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형식이 글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자꾸 머릿속에서 꺼내어 표현함으로써 나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더 오래 남길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 말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고 괜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보면 익숙해질 수 있고 이렇게 익숙해진 뒤엔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내가 스스로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2. 영상 내용 되짚기

- 욕망을 좇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란 무엇일까?

<정*>

나는 편견 없는 것이 욕망을 좇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디오게네스가 욕망을 좇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개를 보며 물을 마시기 위한 컵조차 버리며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을 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알렉산더 대왕을 대하는 모습도 남들과 같은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대하는 점도 편견이 없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처럼 욕망을 좇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편견이 없다. 이런 태도가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며,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최*형>

영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결핍이 모두 충족된 후에 욕구가 생기고,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욕망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것은 욕망이다. 많은 사람들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반면,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는 법을 알게 된다.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충분히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디오게네스는 물컵과 옷 한 벌만을 가지고 살아갔고, 개가 혀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물컵마저 버렸다고 전해진다. 이는 그가 돈같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우리가 디오게네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욕망을 좇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이상을 참을 수 있는 뛰어난 인내력을 지니고 있다. 결국, 욕망을 좇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마음속에있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다.

<김*연>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것이다. 본인의 주관이 뚜렷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즉, 반신불수보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욕망을 비워내려 노력한다. 그 이유는 생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이 가장 걱정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노력하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 생각하는 것도 사치라는 것이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말이다. 먹고 사는 고민이 해결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이 사치이다. 이미 갖추어진 환경 안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미 힘든 것이 없기에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기본적인 것을 갖춘 사람들이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람들이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이다. 정리하자면 생각을 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p><이*윤></p> <p>욕망을 좇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용기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용기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스스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또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모두 포함한다.</p> <p>편견이 없이 생활하고, 자신의 주관에 뚜렷하게 밝힐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그칠 줄 아는 것 역시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영상에서 디오게네스는 물 컵 하나와 자신이 입고 있던 옷 말고는 더 욕심내지 않고 길에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지나던 개들이 입으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던 물 컵조차 필요없다고 느끼고 버리는 선택을 한다. 이 역시 디오게네스라는 인물이 타인의 생활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가치관을 실행하는 용기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p> <p>지난 회차에서 읽었던 책이긴 하지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도리언도 결국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아름답고 싶다는 욕망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만족할 줄 아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욕망을 좇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용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이 밖에도 다른 능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p> <p><활동 사진></p>
--	---

2024년 11월 20일

참가자대표 : 이*윤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비타(vita)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요일) / 장 소 : CLC 스튜디오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이*윤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형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정*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7회차” 심비우스 참여 소감 및 고마운 마음 나누기</p> <p><정*> 이 활동을 하며 너무 좋은 기억만 남았다. 선뜻 먼저 다가와 준 팀장과 본인의 의견들을 스스럼없이 말해준 팀원들 덕분에 나도 내 이야기를 편하게 말 할 수 있었다. 특히,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배려해 준 상황에 대해 좋았다기보다 내가 배려하는 모습 자체를 좋아해 줘서 고마웠다.</p> <p><최*형> 처음에는 독서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한감에 걱정이 많은 나였는데 이렇게 매주 책과 영상을 통해 팀원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오히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발전하는 나를 보게 되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팀원들이었기에 나도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고, 나의 부족함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준 팀원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비록 심비우스 활동은 이제 끝이지만, 이 활동을 계기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p> <p><김*연> 각자의 경험을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한 시간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모두가 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배려해주고 공감해 준 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p> <p><이*윤> 마지막 학기를 알차게 보내고 졸업하고 싶은 마음에 서포터즈 활동과 수업, 그리고 심비우스 활동까지 병행하면서 지치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팀원들 덕분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어쩌면 부족했던 팀장을 믿고 끝까지 잘 따라와 준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p>							

2024년 11월 27일

참가자대표 : 이*윤